

OECD/DAC 회의결과

(DAC Mandate 갱신, 의장단 선출 등)

신임 Eckhard Deutcher OECD/DAC 의장 주최로 2008. 1.22(화)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개최되어 DAC mandate 갱신 방안, DAC의장단 선출개혁,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능력 개발(capacity development) 문제 등이 협의되었다. 2010년 DAC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DAC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더 한층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DAC 가입에 대비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 : 정책연구실]

I. DAC Mandate 갱신 방안

- DAC은 1960년 이래 45년 이상 유지·지속되어 온 DAC mandate를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UN MDGs 이행 및 기후변화등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앞으로 최대 5년내 DAC mandate 갱신방안을 마련한다는 제안(mandate proposal)을 금년 6월 이사회에 제출키로 되어 있음
- 이와 관련 DAC 사무국은 금년 6월 이사회에 보고 내용과 관련 ① 금년 2009-13년간은 약간의 개정 또는 현행 mandate을 유지하면서,

2009년 중반까지 구체적인 검토(reflection exercise)을 거쳐 갱신방안을 마련한다는 안
② 앞으로 2년간(2009-2010)은 현행 mandate를 유지하면서 동 기간동안 구체검토를 거쳐 2011-15년 기간동안 필요시 갱신한다는 안을 제시함.

- 이에 대해 대부분 회원국 대표들은 기존 DAC mandate에 기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사회에 제출하는 상기 1과 2안에 대해 의견일치 보지 못함. 이와 관련 미국측은 소규모 검토그룹(steering group)을 구성 운영하여 구체적인 안(Terms

of Reference 형식)을 마련하여, 차기 DAC(3,4) 회의 이전에 사무국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회원국 대표 및 사무국은 이에 동의함.

- 또한, DAC 산하작업반 mandate문제로 2009-10년 업무계획 및 예산(PWB)의 우선순위를 보아가며 mandate 관련 사항을 개정·조정 방안을 동시에 검토기로 함.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기존에 DAC 의장직을 수임한 국가들이 공동부담(스위스), 회원국가 전체 공동부담(스웨덴), EDRC 의장단 개혁관련 OECD 예산 사용(미국 등)을 제시하면서 난색을 표명함

■ 이에 따라 회원국대표들은 현재 진행중인 EDRC의 의장선출 개혁관련하여 OECD 예산 사용여부 등을 먼저 파악 해본 후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회의에서 재협의기로 함

II. DAC 의장단 선출 개혁문제

- 지난해 11월 DAC 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OECD/EDRC(경제 개발검토위원회)의장 선출개혁방안을 기초로 DAC 의장 선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08년 DAC 고위급회의에서 최종 확정기로 한 바 있음
- 이와관련 사무국은 동 개혁 방안을 수립키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영국, 독일은 이미 자발적기금 출연 표명)필요하며, 시간적 제약으로 오는 5월 22일 개최예정인 DAC 고위급 회의시 DAC 의장 선출개혁방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함
- 이에 대해 대부분 회원국 대표들은 의장 선출 개혁 방안은 추후 의장후보자에 대한 선택기회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동의를 표명하였으나,

III. 최근 개도국 능력개발 (capacity development) 연구 및 논의동향

- 사무국은 최근 '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및 진전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금년 9월 원조 효과제고를 위한 가나 아크라 각료 회의에 '능력개발관련 종합보고서' 작성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사무국은 이를 위해 미래 능력개발에 대한 작업방향(우선순위 분류, DAC 가이드라인 제정 등), 능력개발 이슈를 2009-10 PWB에 반영, 관련 종합보고서 작성시 Co-ordinator 임명(15개월 동안 채용)이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기금출연(독일 18.2만유로, 일본·미국

등이 제공 약속)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 한편 회원국 대표들은 개도국의 능력개발문제는 cross-cutting 이슈로 개도국의 ownership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고 하면서, 능력개발 연구 및 논의에 대한 비용을 2009-10 PWB 예산에 반영하여 충당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함.

- 한편, 일본은 4월초 Africa Partnership Forum(G8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동경 개최를 설명하고, 캄보디아·라오스·말라위 등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함.

IV. 기타 사항

- 금번회의에서 DAC 부의장(3명)으로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대표를 선출함

- 2009-10년간 업무계획 및 예산(PWB)관련 동 PWB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과제(동료검토 등 4개 과제)이외에 여타 회원국이 제출한(일본·영국은 신흥공여국과의 관계강화, 기후변화 등 사업에 반영 요청) 우선사업 순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PWB안에 대해 오는 2.15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확정기로 함

- 신임 Deutcher DAC 의장은 일본초청으로 오는 4월초 동경개최 개발 장관회의 및 아프리카 개발포럼 워크샵에 OECD 사무총장과 함께 참석한 후, 중국을 방문하여 OECD와 중국과의 개발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함. 또한, UN ECOSOC(4.12-13, 뉴욕)과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Accra Action Plan”에 대한 초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